

대선 이후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차 례

1. 튀르키예 총선·대선 결과 및 평가
2. 최근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 5월에 치러진 튀르키예 총선 및 대선 투표 결과, 총선에서는 여당 연합이 승리하고 대선에서는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 5월 14일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소속의 정의개발당(AKP)과 여당 연합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이 총 600석 가운데 과반인 317석을 확보함.
 - 5월 1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실시된 28일 결선 투표에서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후보가 52.2%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함.
- ▶ 최근 튀르키예 경제는 고물가, 리라화 가치 하락, 성장을 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선거 전후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대응해왔음.
 - 202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84.4%를 기록한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다소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2023년 5월 기준 39.6%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
 - 리라화의 가치는 2022년에 달러 대비 약 42.5% 하락하였으며, 고물가, 달러 강세 외에도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리라화 평가절하가 최근까지 계속됨.
 - 튀르키예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 내수 및 수출 회복으로 인해 2023년 1/4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대선 이후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됨.
 - 튀르키예 정부는 소매업체 가격 동결, 최저 임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으로 2023년 인플레이션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힘.
- ▶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부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물가, 리라화 가치 하락 등 당면 과제 선결이 시급함.
 - 내수 진작, 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기초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승리 연설에서 '고물가가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 관료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 소폭의 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 물가상승 압력,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튀르키예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초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세계경제 환경, 원자재 가격, 국내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동 가능성도 상존함.

1. 튀르키예 총선·대선 결과 및 평가

■ 지난 2023년 5월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에르도안 소속 정의개발당이 제1당을 유지했으며, 집권 연정 파트너 민족주의행동당과 함께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함.

- 현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은 전체 600석 가운데 267석을 확보하여 제1당을 유지하였으나, 단독 과반 의석에는 34석이 부족함.
 - 2018년 총선 대비 AKP의 의석수는 26석 감소함.
- AKP와 연정 파트너인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MHP)은 50석을 확보하여 현 집권 연정이 총 600석 중 317석으로 과반을 확보함.
- 한편 야권 후보가 이끄는 진보 성향의 공화인민당(CHP)은 2018년 총선에 비하면 22석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나 총 169석에 그침.

■ 5월 14일 대선 결과 AKP 대표이자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ip Erdogan) 후보가 득표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5월 28일 결선 투표를 실시, 최종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

- 5월 14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후보가 49.24%의 득표율로 1위, 야권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후보가 45.06%를 기록하였으며, 시난 오안(Sinan Ogan) 후보가 5.28%로 3위를 차지하였음.
 - 2018년 대선에서는 에르도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2.99%를 득표하여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됨.
- 5월 28일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후보가 약 52%의 득표율로 47.86%의 득표율을 기록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에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시난 오안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음.

■ 선거 전에는 고물가와 리라화 가치 하락, 대지진 등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호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에르도안과 AKP가 대선 및 총선에서 승리함.

- 실제 선거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지지율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¹⁾
 - 지난 5월 11일 여론조사기관 콘다(Konda)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에 대한 지지율은 49.3%,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3.7%로 조사됨.
 - 다른 여론조사기관 메트로폴(Metropoll)의 조사에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지지율이 49.1%,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율은 46.9%인 것으로 나타남.

1) <https://tvpworld.com/69785036/turkey-oppositions-kilicdaroglu-leads-ahead-of-incumbent-erdoan-in-polls>(검색일: 2023. 6. 13).

- 당시 야당 유력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스 무료 제공,²⁾ 농민보호 정책 등의 민생 정책과 국방력 강화 홍보³⁾ 등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야권 단일후보 지지 세력에 쿠르드 정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보수층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함.
- o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시난 오안 후보는 난민과 쿠르드(Kurd)족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야당의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⁴⁾

2. 최근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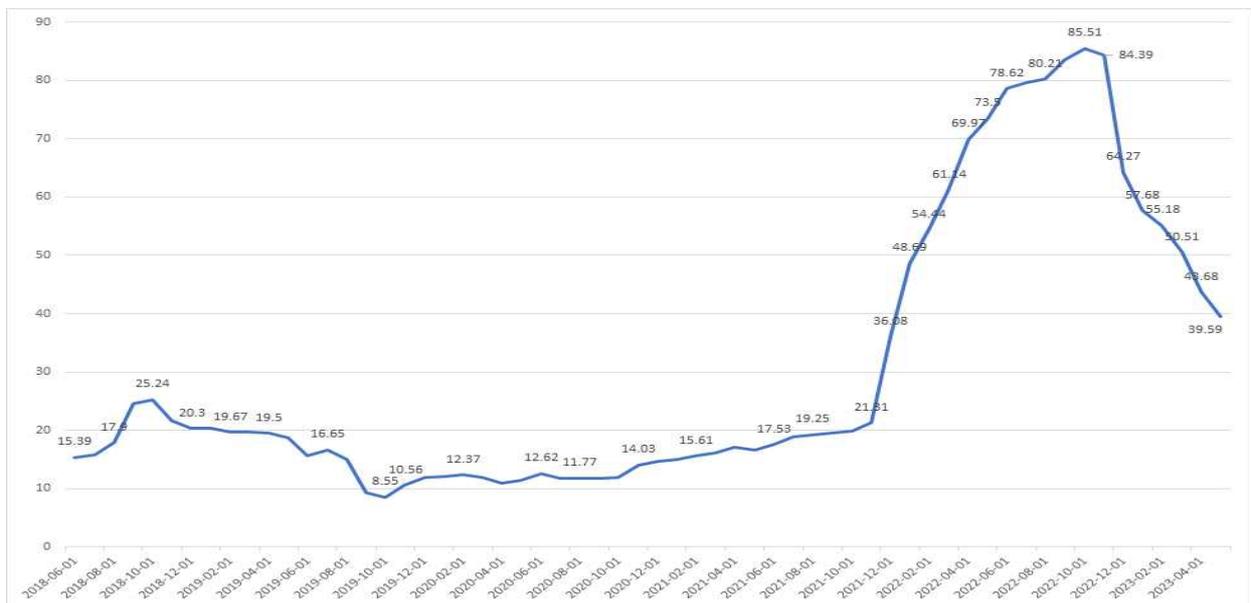
가. 인플레이션

■ 최근 몇 년간 튀르키예 경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정당 AKP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바 있음.

- 2022년 11월 3일 튀르키예 통계청(TUIK)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85.51%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1998년 6월의 91%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 1. 최근 5년간 튀르키예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8).

2) <https://www.middleeasteye.net/news/turkey-elections-erdogan-offers-free-black-sea-gas-residential-areas>(검색일: 2023. 6. 13).

3)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defense/turkiyes-largest-warship-sets-sail-after-public-unveiling>(검색일: 2023. 6. 13).

4) <https://edition.cnn.com/2023/05/22/europe/turkey-ogan-erdogan-intl/index.html>(검색일: 2023. 6. 13).

- 202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84.39%를 기록한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그 이후 다소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에도 39.59%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튀르키예 정부는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으로 2023년 인플레이션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소매업체 가격 동결과 최저 임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⁵⁾

-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에 진입했으며, 국민이 이미 일상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체감하고 있고 연간 인플레이션율도 2023년 중반기 내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힘.⁶⁾
 - 2022년 말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에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며, 인플레이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1월 최저 임금 55% 인상을 발표했으며, 필요에 따라 연중 최저 임금을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힘.⁷⁾
 - 또한 그는 공직자 임금과 연금 25% 인상을 약속하며, 2023년 내로 생활비 재난에서 튀르키예 국민을 해방시킬 것이라 강조함.
- 누레딘 네바티(Nureddin Nebati)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최저 임금 인상 발표 이후 주요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사전 경고하였으며, 메흐메트 무쉬(Mehmet Muş) 무역부 장관도 주요 소매업체 경영진과 만나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함.⁸⁾
 - 상기 두 장관의 경고 이후,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 미그로스(Migros), 소크 마르케틀러(Şok Marketler), 에이원오원(A101), 예니 마자질릭(Yeni Mağazacılık)은 생활 용품의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함.

■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 총재는 최근 정부 정책의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고 밝혔으며, 해외 경제전문가들도 향후 과도한 리라화 변동성이 없다면 2023년 말까지 튀르키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샤희 카브즈오을루(Şahap Kavcıoğlu)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말 인플레이션을 22.3%, 2024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8.8%로 고시하며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밝힘.⁹⁾
 - 그는 효과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로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 기대치가 개선되었으며,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경제전문가 로저 켈리(Roger Kelly)는 리라화에 과도한 변동성이 없다면, 2023년 말까지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¹⁰⁾

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turkeys-inflation-seen-425-2023-gdp-growth-3-2023-01-17/>(검색일: 2023. 6. 13).

6)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turkiye-touts-good-momentum-says-inflation-inertia-broken>(검색일: 2023. 6. 13).

7)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turkiye-touts-downward-trend-as-inflation-falls-sharply-to-around-64>(검색일: 2023. 6. 13).

8)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turkish-retailers-unveil-wave-of-price-freezes-to-curb-inflation>(검색일: 2023. 6. 13).

9)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finance/turkish-central-bank-keeps-inflation-forecast-unchanged-for-year-end>(검색일: 2023. 6. 13).

10)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turkey-inflation-to-fall-further-in-absence-of-major-lira-volatility>(검색일: 2023. 6. 13).

- 그는 튀르키예 은행들이 2018년 리라화 위기 이후 외부 차입 수준을 크게 줄여 세계 경제 변동성에 대한 저항을 높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향후 잘못된 경제 정책을 채택할 경우 리라화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와 은행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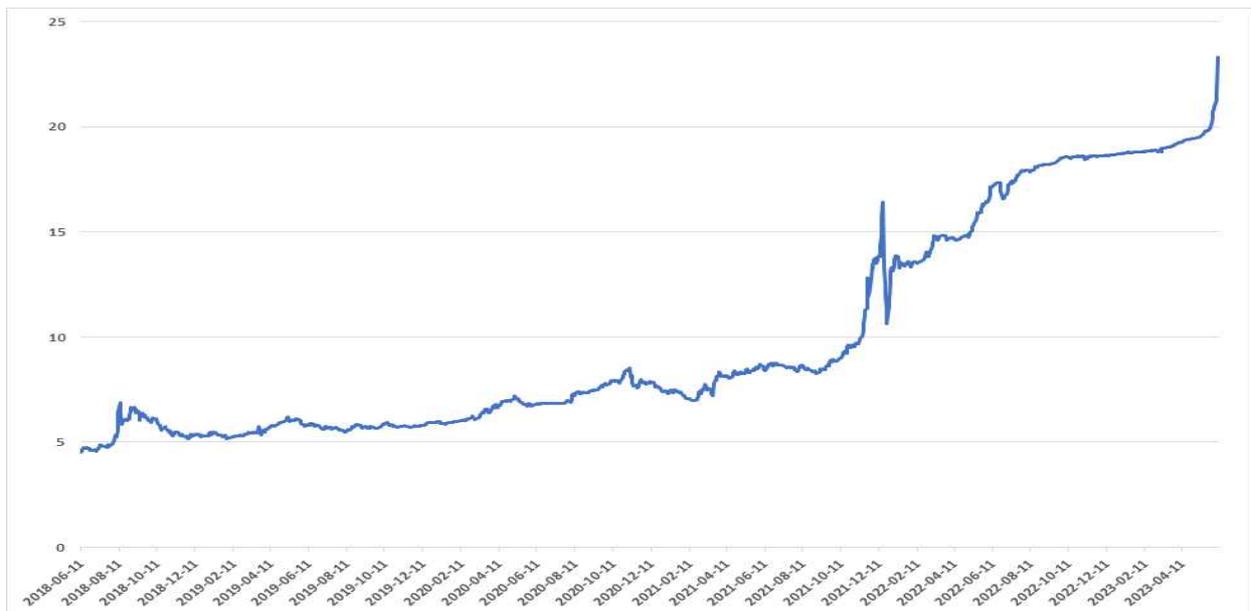
나. 환율

■ 튀르키예 화폐인 리라화의 가치는 2022년에만 달러 대비 약 42.5%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리라화의 가치 하락은 최근까지 계속됨.

- 지난 2022년 1월 3일 미 달러당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은 13.13이었으나, 그해 12월 30일 18.71 선에서 거래되었고, 이러한 리라화 가치 하락세는 2023년에도 계속됨.
- 2023년 1월 2일 18.72 선에서 거래되던 달러화 대비 리라화 환율은 6월 8일 기준 23.3까지 상승함.

그림 2.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 추이

(단위: 종가 기준, 미 달러 대비 리라화)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8).

- 2022년 리라화 가치 하락은 튀르키예의 고물가와 달러 강세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나, 최근 리라화 가치 하락은 에르도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됨.
- 2023년 들어 리라화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 집권이 유력해지고 재집권이 결정되면서 리라화 환율이 급상승한 것은 향후 저금리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것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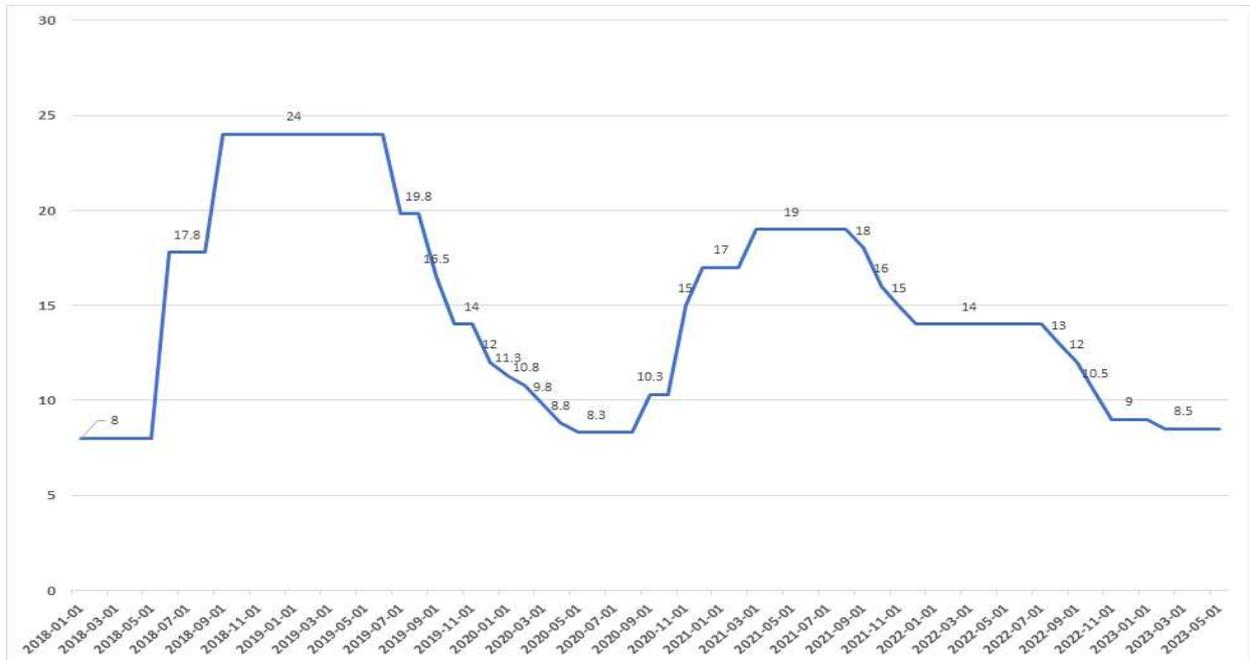
11) <https://edition.cnn.com/2023/05/15/investing/turkey-election-lira-markets-fall/index.html>(검색일: 2023. 6. 13).

■ 리라화 가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전술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튀르키예의 물가상승율과 달러 강제 이외에도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의 시장에 역행하는 금리 정책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등 글로벌 통화긴축에 역행하고 튀르키예 경제의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CBRT는 2021년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500bp 인하한 14%로 설정함.
- 2022년 들어서도 이러한 금리인하 기조는 지속되어 10월 CBRT는 150bp 내린 10.5%로 인하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말까지 금리가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고, 결국 CBRT는 11월 기준금리를 9%로 설정, 연간 네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함.
 - 2023년 2월에도 CBRT는 기준금리를 총 50bp 내린 8.5%로 인하하여 5월 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튀르키예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8).

다. 경제성장

■ 튀르키예 경제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와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관광객 유입 급증,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1~22년 고도의 성장세를 기록함.

- IMF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 11.4%의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리라화 가치 하락 지속으로 관광업 호황과 내수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5.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¹²⁾

12) IMF(2023), "World Economic Outlook - A Rocky Recovery, April 2023," p. 146.

- 튀르키예 관광산업은 2021년 방문객 수와 관광수익이 각각 전년대비 104%, 88% 증가해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회복의 조짐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방문객 수 5100만 명, 관광수익 4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함.

그림 4. 튀르키예의 최근 6년간 관광산업 추이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자료: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KOTRA(2023. 5. 18),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튀르키예 관광산업」에서 재인용.

- 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4% 성장하여 기존 전망치 3%를 상회함.¹³⁾
 -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운송, 보관, 숙박,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2023년 1/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2.4%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단 OECD 및 IMF의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 튀르키예 경제의 성장률 하향을 예상하였으며, 총선 및 대선 국면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관찰될 것으로 전망함.¹⁴⁾
 - OECD의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2023, 2024년 튀르키예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6%, 3.7%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2021년의 11.4%, 2022년의 5.6%에 비해 낮은 수치임.
 - IMF의 4월 세계경제 전망 역시 2023, 2024년 튀르키예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3.6%로 다소 낮게 전망함.

13) <https://www.aa.com.tr/en/economy/turkiyes-economy-grows-4-in-q1/2910785>(검색일: 2023. 6. 13).

14)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IMF(2023), "World Economic Outlook - A Rocky Recovery, April 2023," p.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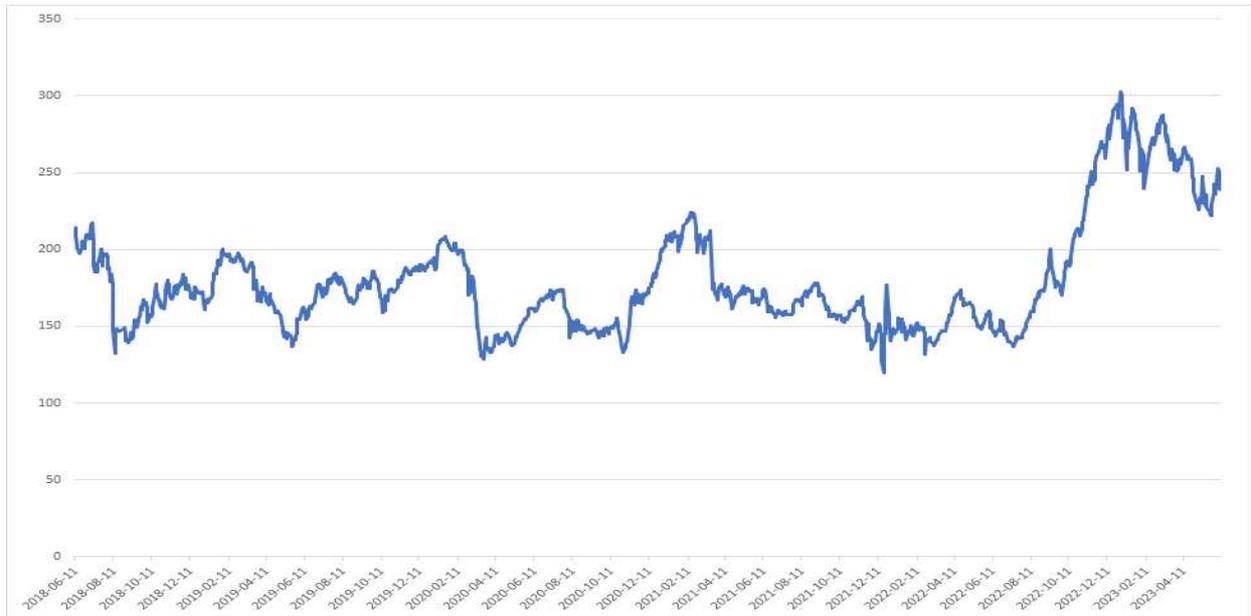
3. 전망 및 시사점

■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부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고물가, 리라화 가치 하락 등 당면 과제 선결을 위한 장기적 정책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음.

- 내수 진작, 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기초 정책이 단시간에 전면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비전통적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리라화의 최근 환율 추이는 물론 튀르키예 주가지수 추이에서도 향후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5. 튀르키예 주가지수(XU100 Index) 추이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8).

- 단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 관료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 소폭의 정책적 변화 가능성도 존재함.¹⁵⁾
-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새로 임명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경제전문가 메흐메트 심섹(Mehmet Simsek)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전통적 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¹⁶⁾

15)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erdogan-vows-to-set-up-reputable-economy-team-with-eyes-on-inflation>(검색일: 2023. 6. 14).

16) euronews(2023. 6. 4), “Erdogan names new cabinet after he is sworn in as Turkey’s president for an historic third term.” <https://www.euronews.com/2023/06/04/erdogan-names-new-cabinet-after-he-is-sworn-in-as-turkeys-president-for-an-historic-third>(검색일: 2023. 6. 14).

-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기반의 금융가 게이 에르칸(Gaye Erkan)을 중앙은행 총재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경제 정책 정상화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음.¹⁷⁾
- 신임 경제 관료와 중앙은행 총재의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될지 여부가 향후 정책기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 압력,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튀르키예 경제가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 환경, 원자재 가격, 국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동 가능성도 상존함.
-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측면에서는 튀르키예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고질적인 적자누적이 외채와 환율 부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6. 튀르키예 재정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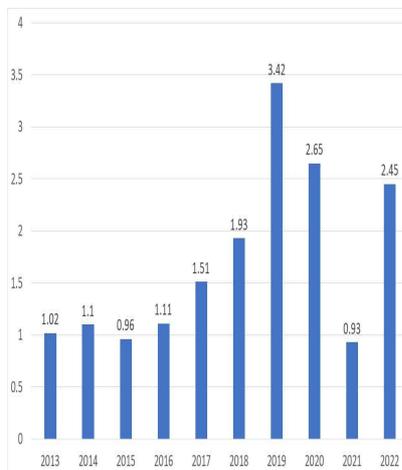


그림 7. 튀르키예 경상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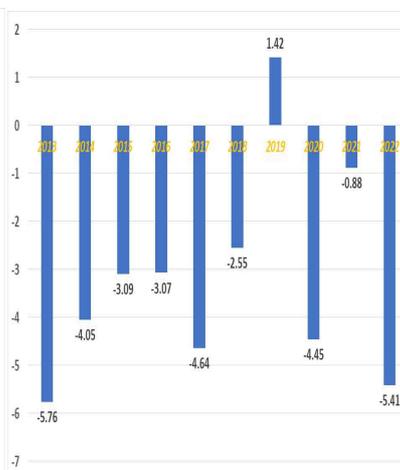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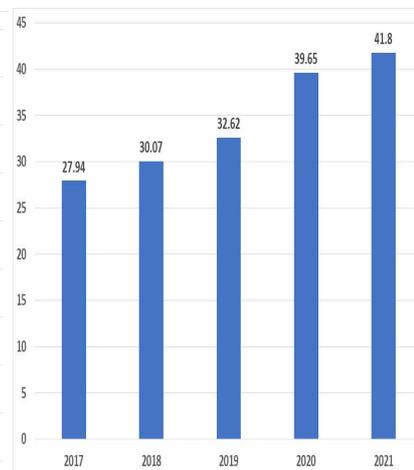


그림 8. 튀르키예 정부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6. 8).

■ 튀르키예는 고성장 경제, 시장의 성장잠재력, 인구 구조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흥시장이나, 거시경제 펀더멘털 취약성에 자주 노출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고성장세를 거듭하여 G20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고,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시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하에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숙련 노동력이 매우 풍부함.
 - 우리의 EU 내 생산거점인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인구 감소와 고급 인력의 서유럽 유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EU와의 관세동맹으로 유럽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수 있는 튀르키예의 이와 같은 풍부한 노동력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튀르키예의 대규모 건설, 유통, 금융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거 진출해 있고, 인근 에너지 생산국에서 최대 에너지 소비시장인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에너지 회랑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17) <https://edition.cnn.com/2023/06/07/economy/turkish-lira-crash-new-government/index.html>(검색일: 2023. 6. 14).

- 다만 튀르키예 경제는 젊은 인구 구조와 노동공급 증가 추세를 수용하기 위해 대외수지 불균형 심화를 감수하면서 내수 중심의 고성장 경제개발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어 거시경제 펀더멘털 취약성에 자주 노출됨.
 - o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 대외의존도 심화 및 고물가 등으로 개도국 화폐 가운데 환율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통화가 튀르키예의 리라화임.
 - o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튀르키예가 미국, EU 등 서방과 대립 및 갈등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에 튀르키예 거시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KIEP**